2026년 9월 25일(금) 구역예배 자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1~11절**
(1)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가 322장을 부릅니다. (2) 구역 식구 중 한 분이 기도합니다.
(3) 사도행전 5장 1~11절(신193)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4)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5) 찬송가 481장을 부르고, 봉헌한 이후 봉헌기도 합니다. (6)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구역예배를 마칩니다.
〈인터넷 참조〉 http://www.pckyesan.or.kr으로 접속, 09월 20일자 주일예배 말씀

<생각하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 중에, '찬물을 끼얹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어 가던 일이나, 한창 무르익은 분위기를, 말이나 행동으로, 망치거나 흐리는 것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예를 들어, 신나는 파티에서, 갑자기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아,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며 고마워하고 있는데, 혼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에, '찬물을 끼얹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기면, 속된 말로,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설교의 요약>

사도행전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인,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불명예스러운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도 땅을 팔아, 돈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교회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신들만 알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 부부의 기만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당신에게, 땅을 팔아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그 땅은 당신 것이니, 그 땅을 판 돈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땅 판 값의 일부만 헌금하면서, 마치 땅을 팔고 받은 모든 돈을 헌금한 것처럼, 속이느냐고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지 않아도, 그것이 책망받을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실대로, 우리가 땅을 팔아,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2천만 원은, 우리 부부가 쓸 데가 있어서 남겨두고, 1억은 교회에 헌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얼마를 감추어 두고서, 땅값 전체를 교회에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거짓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바로 전에는, 바나바가, 땅을 판 값을 교회에 바쳤는데, 그는 교인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는, 다른 교인들의 모습이,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다 바치기는 아까운데,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자신들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물질적인 욕심은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넘어갈 수 있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섞여,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부부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은,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죽은 후, 베드로가 삽비라를 만나,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라고 물었을 때, 삽비라는, "예, 이것뿐이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부부사기단 같은 모습, 부부가 공범이 되어 죄를 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은, ‘함께 꾀하여’라는 말입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 가운데, 어느 한쪽만이, 하나님과 교인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꾀하여’, 하나님과 교인들을 속이려고 들었습니다.

우리말로, ‘함께 꾀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쉬네포네테(συνεφωνήθη)’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는 의미의 전치사와,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함께 소리 지르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쪽은 알고, 다른 쪽은 모르거나, 어느 한쪽은 이렇게 하고 싶고, 다른 한쪽은 저렇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알고 있었고, 둘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삽비라는, 남편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삽비라는, 남편의 앞을 가로막고, 그의 잘못을 제지하며, 하나님과 교인들을 속이지 말자고, 우리, 바르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자고, 남편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남편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하신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의 태동기 때, 하나님이 분명한 교훈을 주시려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려고, 계시하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아니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인을 속일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이신다면, 저를 포함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장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늘 본문을, 교회 태동기 때 발생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사건이라고 이해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무서울 정도의 모습으로,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하여, 내 죄로, 교회와 이웃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며, 이웃을 유익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기>

1.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무리하게 진행하고 마음으로 후회한 일이 있나요? 나누어 봅시다.
2.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령님을 속이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좋게 보이고 싶어서, 남을 속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식하며, 사람들이 알아주는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과, 내 일터 동료들과, 함께 꾀하여,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꾀하여,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심판 또한,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은혜임을, 그러나 속이는 자와 위선자에게는, 심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